

<다시본> 제 4차 회의록

혜윤이 할 일이 있어서 먼저 시작

참여 - 혜윤 다현 예지 정인 정윤 지영 건호

불참 - 없음

속기 - 건호

0. 생활나눔

다현 - 혜윤의 과제를 좀 도와줌. 교육부가 새터 관련 공문 보낸 것에 대해 자보 검토함. 근데 총학회장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, 입장문을 쓰려면 자료도 좀 잘 찾아보고 전문가(pro)의 첨삭도 받아보고... 그래야하는데 12 시쯤 봤는데 비문도 많고, 사회대 부가 쓴 건 말투가 번역투라 좀 애매하고.... 열 두시에 이걸 받아보고 으어.. 나는 빠치고 혜윤은 기말과제 못 내고.. 나는 꿈에서 송준석이란 조모임하고..

정윤 - 일요일에 총여실 치우고 하루 종일 잤고, 일요일부터 알바 시작. 회사가 인테리어 회사인데, 용어 아무 것도 모르고, 근데 저한테 마케팅을 하래요. 블로그를 운영하라는 건지. 작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일을 할만한 거 같아요. 오늘 정승하? 선생님 수업도 좋았던 것 같아요. 성 정체성, 인증적인 뭐, 성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

지영 - 일요일부터 아직까지 집 대청소를 하고 있어요. 집이 너무 좁아. 반찬도 만들고 밥을 해먹으려고. 그것 말고는 아직 별 게 없어요. 자존감이 떨어지는 느낌? 뭐 그래도 아직 별 일은 없어요.

예지 - 저도 회의 끝나고, 다음 날 청소하고, 다음 날 두런두런 회의하고 재실하고 그렇게 살았어요. 똑같은 상황이라 나눌 게 없는 것 같아요.

정인 - 레포트를 썼습니다. (와 짱이다) 방도 청소했고, 잘 잤고, 오늘도 잘 잤구요, 어제는 수업 시작해서 방학이 끝나고 계절학기 시작. 할 얘기가 없네.

혜윤 - 중운위를 했어요. 총여 활동 보고가 그냥 내 활동 보고예요.

건호 - 일요일에 청소 끝나고 위염이 걸려서 집에서 쉬었어요 ㅠㅠ 감기 걸렸어요 ㅠㅠ 많이 나아지고 있다. 열심히 아파하면서 3 일을 보냈다 ㅠㅠ 위염 때문에 죽만 먹어서 식욕 폭발. 그래서 장을 6 만원 어치를 봤다.

1. 활동보고

혜윤 - 바졌는데 학생처 상건례 갔어요. 학생처 사람이 학생처는 중운위의 영원한 올이다. 학생이 갑이다. 이런 말을 들었어요. 유쾌한 자리였어요. 탁틴내일 미팅 안 가려고 했는데 시간을 당겨주셔서 갔어요.

질문?

정윤 - 송준석씨랑 일요일날 만났나요?

혜윤 - 일요일 날 짬뽕 사주면서 아쉬운 것들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, 총여로서 권주사시키거나 말 놓으라고 강요하지 말라고 하면서 중운위 분위기를 잘 잡아주기를 부탁하면서 선거 구호 관련 얘기를 했어요.

2. 중운위 안건 공유

혜윤 - 예비 수강신청 제도나 마일리지 제도. 더 듣고 싶은 과목에 자기가 마일리지를 부과해서 똑같이 되면 마일리지가 높은 사람이 신청된다거나. 마일리지가 같을 때 어떻게 나눌 것인가? 이수 학점이나 생년월일로 나눈다고 해서 폭격을 받았어요. 2학년이 가장 불리해지는 것이 아니냐. 학점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.

지영 - 예비수강신청 내가 솔루션에서 했던 사업. 불문이나 심리, 문대 인가 몇몇 학과랑. 티오가 엄청 안
열리거나 이중이 많거나, 경영 경제 이런 곳에서 티오를 파악해서 강의실 규모를 늘리려고 만든 정책이었다.

혜윤 - 근데 강의를 늘리려는 건 없고 있는 티오 안에서 다시 이상하게 나누려고 해서... 공대가 몇 천
명이 동시에 누르니까 서버가 터질 수밖에 없지 않냐고..

혜윤 - 건강이나 소음 뭐 그런 거 활동하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안 한대요.
질문?

3. 방학 중 재실 시간

정윤 - 알바 시간을 잘 맞추면 세시에 올 수 있어요.

혜윤 - 또담이 없는 날은 세시 반부터 하고, 없는 날은...

정윤 - 1월 1일에 재실?

혜윤 - 안 해도 되죠.

4. 신촌 총여실 비품 구매

혜윤 - 본체 2대 모니터 4대. 본체가 정상적이긴 한데 좋은 건 아니에요.

예지 - 다 바꿔달라고 하면 안 되나.

혜윤 - 얘기해볼게요. 10 개?

지영 - 6 대도 많을 걸요?

혜윤 - 6 대로 해요. 그럼 모니터도 교환해달라고 할까요? 본체 6대 모니터 6대 맥 한 대. 총학처럼ㅋㅋ
프로젝터는 켜봤나요?

건호 - 소음이 엄청 심해요.

혜윤 - 요구해볼게요.

지영 - 여성영화 상영회해요.

혜윤 - 좋은 변명이 생겼네. 또 필요한 거? 가습기! 공기청정기는 제가 집에 있는 걸 가져오고.

정윤 - 본체 가져올 때 포토샵 돌아가는 정도로...

혜윤 - 사양은 i7 에 ssd 로

건호 - 그래픽 카드는 지포스 gt730 이상으로..

혜윤 - 프린터? 컬러 인쇄할 일 있냐요? 넘어갈게요.

책상 과 가구에서 필요한 거.

예지 - 좌식 테이블 사무용품이 아니라서 안 줄 거 같아요.

혜윤 - 러그를 깔까.

다현 - 이쁘니까 싸구려를 사서..

예지 - 새 쇼파 달라고 하면 안 되나.

혜윤 - 가구는 어차피 쌓여있는 데가 있어서 물어나 보고 없으면 씌우거나 만들거나.

의자를 좀 더 달라고 해야겠네요.

정인 - 들어올 때 파티션이 있으면 좀 무섭달지. 파티션을 좀 옮기고 한 칸정도 더 있으면 좋을 거
같아요.

혜윤 - 파티션 재실 중인 집행위원이 볼 수 있도록 투명한 부분을.

이거 다 정리해주실 분? 컴퓨터 사양이랑 파티션 치수랑 책상 이런 거. 급한 건 없으니 여유되는
대로.

국캠 방문 날짜 1/3 12 시 송도.

혜윤 - 정윤이 51 대 솔루션 중운위 회의록을 다 봤는데 총여실 위치가 없었대요.

정윤 - 열쇠는 받았다고 적혀있었어요. 이과대 뭐 배분했다거나 그런 얘기는 많은데 총여 얘기는 없었어요. 51 대 솔루션.

혜윤 - 비대위라 올해 받은 걸지도? 아예 가본 적이 없다고 했으니까. 총학에서 다음 주에 알려준다고 했어요. 국캠 공간 관련해서 또 논의할 게 있어서.

예지 - 다음 주에 알려주면 1/3 에 갈 이유가 없지 않나요.

정윤 - 이한솔씨는 모른대요?

5. 사업 및 논의 안건

(2)

혜윤 - '섹시하다 이슬아'에 대한 항의 문과대 선거 때부터 썼고, 그 이후로 이슬아씨의 상징이 돼서 그냥 썼음. 송준석이 그걸 쓰는 것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고 합니다. 할 말이 없어짐. 회장 부회장 집장 3:3 으로 만나서 논의해보고, 중운위 때 활동내용을 공유하기로 정한 건 아닌데 해도 되려나?

예지 - 말이 잘 통하면 중운위에 공유를 안 해도 될지도?

지영 - 보통 다 하지 않아요?

다현 - 그래요. 원론적으로 가요.

혜윤 - 하면 좋을 거 같아요. 업무적인 만남이고 은밀하게 처리할 필요는 없고, 우리가 그렇게 해줄 필요도 없죠.

(3)

지영 - 아직 연락 안 했어요.

혜윤 - 생리대를 받으면 단과대별로 배부를 해줘야. 전 연세인이 쓰는 거라서 홍보 잘 되는 것이라는 걸 강조하고.. 특히 새로 생긴 브랜드에 하면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?

여휴 이불받기 사업을 방학 때? 아니면 학기 중에?

예지 - 학기 중에는 여휴 준비가 어렵지 않을까요.

혜윤 - 여휴 목록을 호에서 알려준다고 했어요. 어디에 여휴가 있는지. 지영 혼자 가지는 않는 게 좋을 듯. 시간이 많이 드니까. 표를 만들어서 지시해주면 좋을 듯.

세미나 커리와 홍보. 커리가 뒤에 있는데 이따가 얘기.

(6) 집행부 모집

지영 - 이민경씨가 에코 프로젝트 제안하셨던 분?

혜윤 - 이분이 있는 단체가 제안했음.

지영 - 누가 '이래서 운동권이 싫다니까'라고 하길래...

혜윤 - 이분은 좋은 분 같아요.

읽는 시간

혜윤 - 어떤 분인지 예지가?

예지 - 민경씨는 두런두런에서 만났고. 사회학의 이해에서 만났는데 여성주의에 관심 많고. 미래씨는 친하지는 않은데 제안했어요. 좋은 사람이에요.+

혜윤 - 1-2 월에 뉴욕에 갔다 온다고 해서 집행부 엘티랑 회의는 오셔야한다고 말했고, 오늘 답메일을 준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옴

다현 - 글로 봤을 때는 다 좋은 분들인 거 같은데 겪어봐야 알겠쥬. 잘 모르겠어요.

혜윤 - 딱히 반대는 없... 2 월부터? 3 월부터?

가능하면 다음 주부터 오시고 불가능하면 2 월 2 일(?)부터 참여하는 걸로

혜윤 - 미래씨 지원은?
정인 -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.
혜윤 - 그럼 면접 보기로.

(7) 서경지부 청소노동자 교섭안 논의 필요.
다현 - 집행부 공대위 담당도 정해야.
지지는 하는데, 우리가 참여할 역량이 되는지 모르겠어요.
혜윤 - 한다고 동의해도 갈 시간은 없을 거 같아요.
다현 - 집단교섭 임박하면 더 바빠질테고.
혜윤 - 바쁘지만 꼭 가고 싶다는 분이 있으면 가고.. 없는 듯?
덧붙여서. 공대위는 먼저 제안이 들어오지는 않았는데
다현 - 기다려보죠
혜윤 - 공대위 참여하면 서경지부 이것도 참여하게 될 거 같긴 한데.
이전 총여는 공대위에 참여했었나?
다현 - 2013 년도에 안 했고
건호 - 2012 년도에도 안 했고
혜윤 - 참고하고 역량을 봐서 합시당. 좋은 거절의 말을 작성해주실 분?
사실 1 차 회의한 내용도 왔는데,
저한테 제안한 사람이 끈질겼어요
다현 - 여지를 남기지 않고 칼같이 자르겠습니다.

(8) 김이박님

혜윤 - 여기저기 연락을 해봤어요.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무리 이상한 상담원이 와도 '술 먹은 네 잘못이다'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듯. 징계도 두 번째로 센 걸 받았대요. 무기정학. 피해자가 1 학년이었고, 되게 오랫동안 정학인 거. 무기정학 이후에 가해자가 군대를 그냥 가버려서. 가해자 교육도 최대 30 시간이고. 보통 무기정학 내리면 자퇴를 하는데,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자퇴 안 하고 다 받고, 그래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최선을 다 한 건데, 선생님이 보기에는 사건에 대해 얘기하고 그 뒤로 싹 빠져버렸대요. 심의 결과 나왔을 때도 재심의 요청하지 않았고. 1 년 뒤에서야 다시 뭘 할 수 있는 게 없냐고 했었고.

선생님도 가해자가 과학생회장이고 중징계를 내려서 인상적이어서 아직 기억하시는 듯. 공소시효와 관련한 말을 한 적도 없고, 개정된 이후 5-10 년 이렇게 바뀌었어요. 재작년이나가 몇 년 된 것이긴 하죠.

다현 - 가장 중요한 건 가해자의 잘못도 있지만, 너의 잘못도 있다는 식의 얘기?

혜윤 - 기억이 잘 왜곡되기도 하고... 우리가 어떡해서든 비난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.

다현 - 공소시효가 혹시 재심의 기간?

혜윤 - 대자보를 쓰는 건 할 수 없다고 생각. 사실관계도 확인 안 되고, 총여가 개인의 사건에 대해 대자보를 붙여주는 게 적절한지..

정인 - 쓴다면 피해 사례를 보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

혜윤 - 선생님이 말한 그분이 맞는지 알아보고, 이전 상담기록 열람 가능한지 요청을 하려고. 그때 상황을 파악하고 논의해보는 게 어떤지. 대자보를 붙인다고 해도 학생처 성평등센터 가해자를 고발한다는 내용을 쓸 수 있는지도.

다현 - 이분은 이걸 들어주는 게 치유 상담이니까. 가해자가 도덕적으로 응징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만

예지 - 로리샘 말만 다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.

정윤 - 여전이나 다른 곳에서는?

혜윤 - 그분들도 공통적으로 다 만나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라고.

정인 - 역화심정을 푸는 게 더 중요한 듯.

혜윤 - 이분의 상상력에서 가장 강한 처벌?

정인 - 로리샘이 미안하다고만 하면 풀어지지 않을지

혜윤 - 그럼 인정하는 것이니.

정인 - 대자보에 초점은 아니고...

혜윤 - 일단 만나서 저희가 완전한 지지를 표하는 것처럼 얘기했다고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니, 이분이 말하는 것이 사실관계에 가깝다는 생각으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보고, 치유 상담을 안 받았다면 제안도 해보고. 그럼 만나기 전에 상담기록을 봐야겠네요. 다른 선생님들한테 만나기 전에 태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물어보고. 업무폰으로 연락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

(10) 총여실 공간 사용

집행부의 친구가 놀러왔을 때

다현 - 요란하게 피해를 주거나 키스하고 난리나거나 하지만 않으면 될 듯

혜윤 - 성적 행위를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면

물건 없어지면 그때 생각해요. 없어질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데ㅎㅎ

다현 - 비밀번호는 관리를 좀

혜윤 - 절대 알려주지 않는 걸로.

다현 - 낯선 분이 혼자 오면 누가 오면 누구 친구라고 인사만 해달라고. 친구분 혼자 오면 누구 친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다가 갈 거라고.

혜윤 - 밤에 둘만 있을 때 말고는 술은 마시지 않는 걸로.

공간 대여

다현 - 집행부나 내부 세미나에 꾸준히 오는 사람 등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대여가 가능하도록. 사적 네트워크 내에서.

혜윤 - 집행부 복지ㅋㅋ 차원에서 회의랑 겹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도록 할게요. 동시에 두 개는 안 되는 쪽으로 하고. 상식적인 수준의 배려를 생각해봐요.

예지 - 제 친구가 컴투게더 홈커밍데이 뭐 연습을 해도 되냐고 물어봤는데, 저도 뭔지는 잘 모르는데 공간만 있으면 된다고..

혜윤 - 개네 춤추지 않나요? 그럴 공간이 없을텐데.

(11) 또래상담가.

혜윤 - 속기를 하는데. 내부 공유만 합시다.

다현 - 어쨌거나 합격자 내부에서 하는 강연이니까.

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

(5) 너와나의연결고리 세미나 커리

혜윤 - 개괄부터 얘기를 해봅시다.

페미도 서문부터 읽으면서 여성주의가 무엇인지 얘기해보는 걸 생각했어요.

예지 - 텍스트는 어느 정도?

혜윤 - 1-4 까지 전부 책 한 권정도? 그때그때 프린트해서? 그러면 다 못읽는데.

다현 - 홍보용으로 뭐 할 때는 여성주의라는 말 아예 쓰지 말라는 피드백이 있었음.

예지 - 여성주의 세미나 할 건데 여성주의 없으면 사기치는 게 되지는 않을까?

혜윤 - 빼면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.

예지 - 막 부각시키지는 말고.

혜윤 - 매주 주면 읽고 할 시간이 없는데 5-10 장정도 할까요.

다현 - 이럴 거면 왜 세미나를 해요? 수준으로 확 낮춰야.

예지 - 와서 읽을 수 있는 간단한 내용들

혜윤 - 우리가 말로 떼워야 하니까 준비를 많이 해야할 거예요.

예지 - 핵심 키워드와 메시지를 정하면 텍스트만 준비하면 될 듯

다현 - 개괄이 가장 어려울 듯. 234 주차에 맞춰서 개괄을 확 축소시키거나. 성폭력 외모 연애에서 타자에

대한 존재와 감수성과. 그런 것들을 압축적으로 할 수 있는...

혜윤 - 오늘 또래상담가가 좋은 개괄이었던 것 같아요. 정체성 얘기하면서

다현 - 대신 쉽게. 난이도를 1/5 로 확 낮춰야.

혜윤 - 개괄에서 그 다음 3 개의 세미나를 왜 하는지를 좀 설명하는 자리가 되어야할 듯.

다현 - 굳이 교재가 있어야하는지.

예지 - 페미도 서문정도?

다현 - 읽을 애들은 읽고 안 읽을 애들은 안 읽고.

혜윤 - 그 시간에 읽을 텍스트랑 추가 내용도 주고. 5-10 페이지정도?

다현 - 그런 글을 본 적이 없는데. 저는 페미도 서문도 별론데.

혜윤 - 카드 웹자보에 넣을 내용에 잘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? 글 읽는다고 하지 말까? 가벼운 읽을거리.

다현 - 거의 텍스트 안 읽고 애네들 와서 한풀이만 하고 가도 이 폐허에서는..

혜윤 - 아는 애들은 뭐가 문제지점이고 그런 것들이 익숙한데, 모르는 애들은 그걸 알려줘야(?)

다현 - 가벼운 읽을거리 중 하나로 우리가 직접 만든 유인물을 배부하면 늘 하던 성인지교육에서 하는 것처럼 성폭력 뭐 사례 몇 개 던져보고 가벼운 용어 몇 개 던져주고. 보충자료는 다 뒤로 넣고.

예지 - 가벼운 애깃거리만?

다현 - 작성과 발쇄가 필요할 듯. 저는 여성학 책이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.

예지 - 쉬운 텍스트 다섯 장 이하?

혜윤 - 와서 읽을 수 있는 정도?

다현 - 대중세미나는 그때그때 첫 주 보고 온 사람들 대중 감안해서 난이도가 뛰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그래요.

혜윤 - 일단 첫 세미나를.

다현 - 일단 공지를 냈으니까 거기에서 더하든 빼든

혜윤 - 매번 겹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바뀔까? 전체 세미나의 흐름이 끊어지니까.

다현 - 그냥 개쉽게 하고 그냥

혜윤 - 부분참을 허용하지 말까?

다현 - 이미 폐북에 댓글을 달아서..

혜윤 - 계속 홍보 올리고 와이섹에 올리기 전까지 참여를 기대하기는 힘들 듯

다현 - 1,2 학년 대상인 걸 공지를 안 했는데, 쉬워보이는 느낌이 나게 한 듯. 수준이 너무 높아지거나

공부 좀 한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면 1,2 학년들이 기 꺾이고, 오히려 상처받기도 하고.

혜윤 - 이정도 다 읽을 수 있는 수준 아니야?

다현 - 우리과에서 본 게 있는데, 김현미쌤 수업 들으면 텍스트 보고 자살하고 싶다고 막...

혜윤 - 근데 꽤 관심있는 사람들이 올 텐데. 아무리 친숙하게 굴어도 개네가 안 친숙해서 안 올 듯.

4 주동안 시간을 내서 오는 게 대단한 노력이니깐. 3 시간으로 했는데, 앞에 시간을 좀 읽는 시간?

예지 - 1 시간은 많고, 20 분?

다현 - 생활나누기를 하고 있어도 되고.

정윤 - 생활나누기하면서 텍스트를 읽어보고, 키워드 던지고 이런 식으로. 키워드 던짐으로써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. 남은 텍스트는 집에 가서 읽고.

예지 - 근데 우리가 너무 촉박해서.

혜윤 - 처음에는 이렇게 촉박하지 않았는데.

예지 -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합의를? 난이도는 어느 정도 얘기된 거 같으니까.

혜윤 - 처음에 오면 자기소개, 생활나눔, 우리가 키워드 던지고, 의견을 듣고, 읽으라고 하고, 얘기를 하고, 밥먹으러 가요.

다현 - 괜찮네요. 나름 매력적이네요.

정윤 - 보고 20-30 분 읽을 분량 ...

다현 - 중간고사 교재만큼

혜윤 - 책 사서 보라고 하기도 뭐하고... 커리집 하나 뽑아요.

정인 - 불가피하게 부분참을 받지만

혜윤 - 부분참을 지양하긴 하지만 가능한 것을 원칙으로

다현 - 부분참이 가능하다고 하면 막 올 수 있을 거 같으니까.

혜윤 - 계절학기 수강생을 위해 전참 혹은 3-4 주차 참여.

정윤 - 세미나 하는 분들의 높낮이는?

혜윤 - 그렇게 낮지 않을 거다고 얘기한 거고ㅎ 얼마큼 읽고 오세요..라거나

예지 - 커리집을 빨리 써야?

혜윤 - 다음 회의 전에 한 도 모여서 얘기 해봐야할 듯.

예지 - 외모 이런 건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혹시 생각해 본 내용이 있는지?

정윤 - 1 주차에는 좀 친해져야하니까. 자신의 정체성을 써보는 거 좋았음.

혜윤 - 안녕하세요?에 어울리네요. 서로의 정체성 탐구.

....

혜윤 - 외모와 성차별

다현 - 양성평등하게 남자사례도 넣어주죠. 예전에는 여성을 주로 피해자화했고 그런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, 여전히 여성들이 외모에 신경쓰거나.. 그런 게 압도적으로 많고. 사실 남성성 자체도 자신을 관리하기를 요구받고 외모를 강요하고 요구하는 거 자체가 여성에게 피해가되고 성차별적이라기보다는

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...

예지 - 외모 관리를 강요하는 상황에서 주로 하고 싶은 내용인지

다현 - 사실 성차별이라는 단어를 다 쓸 수 있으니까

혜윤 - 그럼 외모라고 해요.

예지 - 여성에게만 집중하지는 말자는.

혜윤 - 3 주차

다현 - 여성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듯... 통계를 봐도 피해자 95%가 여성. 성폭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여성의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맥락을 얘기해야할 듯. 법에서도 남성 성폭력 피해가 인정이 됐고.

정인 - 사람들이 야한 옷이- 뭐 이런 얘기 다 하는데 페미니즘은 왜 아직 이런 얘기를 하지? 라는 생각을 하거나. 허를 찌르는 내용이나 아예 객관적인 내용

혜윤 - 피해자성에 대한 내용

예지 - 성폭력이 너무 어려워서 누군가 해줬으면..

다현 - 커리를 짜는 거.. 제가 해볼게요.

? - 학교 안에서의 사례

다현 - 2 차 가해에 대한 내용도. 학내 사례를 각색했다는 걸 얘기하거나. 2 차 가해, 우리가 피해잔

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변인이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.

정윤 - 자신의 사례 얘기 좋음

혜윤 - 4 주차.

예지 - 이거야말로 뭘 얘기해야할지. 제가 아는 데로 한 건데. 정체성은 앞에 나오니까 빼고.

혜윤 - 이성애와.. 도 넣으면 너무 많아서 이성애 중심주의까지만.

다현 - 보통 연애라고 하면 머글들은 이성애라고 생각하죠

예지 - 이성애 잘 하는 법을 기대할지도. 예전에 호가 연애평강도 하고.

다현 - 다른 방식으로 잘 가르칠 필요도 있는 듯. 원론적인 얘기들. 여자가 no 라고 하면 yes 가 아니라고 하는 것도 yes 도 yes 가 아니니까 맥락을 잘 살펴보지 말고, 여자애들도 어설프게 yes 라고 얘기하지 말라고.

근데 이건 성폭력에 들어가야하지 않을까.

예지 - 이성 연애에서 젠더 수행. 여성이 수동적인 포지션을 가져가게 되는...

다현 - 모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고통을 가져가야하는 것은 본인이니깐.

예지 - 섹스는 포함시킬까 말까. 연애랑 섹스랑 너무 연결되니까.

혜윤 - 맞아 제목이 그렇긴 해...

정인 - 간접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으려나.

예지 - 한 번 찾아보죠.

혜윤 - 연애세미나에서 세 시간동안 섹스 얘기만 할지도

다현 - 연애 내부에서 섹스와 관련하여 성폭력이 발생하기도 하고... 이 화제를 얘기하는 게 불편하시거나

꺼려지시면 다른 얘기를 하근 나게 좋다고 생각하면

예지 - 말하다가 너무 심해지면..

다현 - 스무살이면 섹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말할 수 있어!라고 할 수도 있어서..

정윤 - 몇 주차든 맨 처음에 뭘 할지 확실하게 얘기해야할 듯.

다현 - 껄끄럽거나 수줍거나 그럴 수도.

혜윤 - 그런 답변할 수 있게 해야겠다.

예지 - 섹스 연애 여성성 남성성 이런 얘기할 건데,

다현 - 섹스 대신 스킨십이나 다른 단어로 대체하거나

혜윤 - 불편하다고 해서 시키는 얘기를 아예 안 할수도 없어

다현 - 스킨십으로 뭉뚱그려서 얘기하고, 마지막 주차에 넣어둔 게 다행인 게, 3 주까지 보면 파악이 되니까

혜윤 - 은근쑥쑥 무성애자인지 성적 보수주의자세요 막 이런 거 막

일동 - 왜 이러세요 ㅋㅋㅋㅋㅋㅋ

혜윤 - 예지랑 다현이 다음 회의 전에 만나서 최종안을 만들기로.

홍보문구도 만들어줘야해요. 최대한 품이 안 되는 쪽으로

정인이 카드도 만들어줘야.

다현 - 내일까지

혜윤 - 내일하면 정인이 주말정도까지.

혜윤 - (11)에서 깜빡했는데 정윤이 만들어온 홈페이지 구성 초안
쉬는 시간

혜윤 - 홈페이지 관련 피드백

정윤 - 편의시설이라는 이름 바꾸기. 복지는 좀 아닌 것 같고.

정인 - 자료실이랑 묶어서?

다현 - 강의나 생활안내 이런 거.

혜윤 - 제목을 좀 더 귀엽게? 근데 그렇게 하면 더 만들기 어려워질 듯

예지 - 공약 이행 상황 말이 좀 이상한 거 같아요.

정윤 - 총학에 있는 게시판 중에 좋은 거 같아서. 언제 뒀었다했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.

다현 - 이걸 하면 우리가 쪽쪽 잘 뺏어나갈지는.

혜윤 - 회의록은 공개안 해도 될 듯.

정윤 - 2014 년 타임라인을 만들어서 한 줄로 간단하게

예지 - 공약에 있는 것만 써야할 거 같고. 그러니까 활동 보고로 바꾸는 게 좋을 듯.

혜윤 - 활동 일지라고 하면 좋을 듯.

정인 - 공약이랑 정책자료집을 자주 비교해요.

예지 - 우리가 싫지만 올려야?

혜윤 - 근데 선본과 학생회는 다르잖아?

예지 - 차라리 새로 만들어서 사업계획을 넣는 게?

혜윤 - 그래요. 1 년 사업 계획

예지 - 후보자가 아닌데? 조직 소개? 회장단만 따로 소개하는 것도 웃기고. 주로 국책에 이걸 올려놓죠.

조직도.

지영 - 이거 아마 솔루션 가도 있을 거예요.

혜윤 - 알립니다는 피드백 없나. 연세춘추라고 해요. 그렇게 써있잖아.

다현 - 언론 보도

혜윤 - 학내언론 학외언론 나눠놓으면 안 되나.

다현 - 홍보 포스터도 공지에 올려놓으면 좋을 듯

예지 - hot issue 는 못할 듯.

혜윤 - 자보 및 성명도 공지사항에 넣으면 될 듯

정인 - 알립니다에 활동 일지를 넣는 것이 좋을 듯.

혜윤 - 정책자료집을 없애서 주요 사업 계획으로.

정인 - 다시봄은 안에 공약 및 기조, 주요 사업,

예지 - 정책자료집을 뺏다고 해잖아요 그러면 달라지지 않아요?

다현 - 공약 및 기조를 넣을 필요가 있나?

혜윤 - 다시봄은에서 은 빼고 다시봄에서 기조.

다현 - 기조가 맨 위

.....

혜윤 - 다시봄 넘어가고 주요사업

정윤 - 주요사업은 할 것들

혜윤 - 소통공간. 왠지 구린 거 같애.

예지 - 자유게시판이 없으면 안 되요? 홍보게시판? 우리 말고 다른 단체의 일이나 학회.

혜윤 - 대리로 올려주는 식으로.

예지 - 묻고 답하기 없으면 안 되나?

지영 - 들어가면 바로 메일로 보내도록.

정윤 - 소통이란 걸 얘기했으니까, 엄청 강조한 건 아니지만, 그래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학생들과

얘기하는

다현 - SNS 있잖아요.

혜윤 - 홈페이지를 열어놓으면 광고가 열 개씩은 올라와요.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답변해줄지.

예지 - 메일이 오면 답변해주면 안 되요?

혜윤 - 질문이 아닌 것들 보낼 수도 있고.

다현 - 근데 호에도 남자애들이 저격성 메일을 보낸 경우가 있겠죠?
혜윤 - 그정도면 꽤나 성의있는 거 아닌가. 메일 찾아서 그런 걸 다 쓰는 거 참 적극적인데.

다현 - 연세춘추 기사에도 누가 댓글 달았었는데.

예지 - 이걸 열어봤다가 테러가 오면 닫아버리면?

혜윤 - 닫으면 또 욕먹어요.

예지 - 그럼 닫아요ㅋㅋ 그리고 소통공간이라는 말을 바꿔야할 듯.

혜윤 - 성폭력 신고는 게시판으로 하면 안 되고 따로 연락

다현 - contact us 를 대분류로 빼고

혜윤 - 다시봄 안에 다시봄으로 넣으면 안 되나? 있긴 있어야하니까 두 번 넣어요. 맨 아래에도 넣고..

혜윤 - 건의사항이라도 만들어야하나?

지영 - 어쭙잖게 만들고 답하는 것보다는 전부 메일로 받는 게?

혜윤 - 메일로 설정 같은 걸 만들 수 있나? 카테고리들 만들어서 항목이랑 이름 학번... 통합? 근데 따로 분류해야할 필요는 있는 게 홍보게시판은 따로 있어야. 건의사항 따로 만들어야하나? 넣을까요 말까요

정인 - 양식에 이름학번연락처 다 쓰도록.

혜윤 - 다음은 '자료실'로?

다현 - 적절하네요.

혜윤 - 성폭력 예방 및 가이드북. 성폭력 관련 자료?

정윤 - 이 세 개는 총여 게시판에 있으면 좋을 거 같아서. 성평등 자치규약은 접근성이 좋지는 않잖아요.

혜윤 - 세미나 자료를 올리면 저작권에 걸리지 않나?

정인 - 자료게시판이 있어도 책은 못 올리기 때문에

다현 - 학생대표자 교육 자료도 올리지 않는 게.

혜윤 - 요청이 와서 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..

정인 - 하나로 묶은 다음에 소분류로 나눌 수 있으니

혜윤 - 성평등 자치규약이랑 성평등 예방 및 대처 가이드북은 따로 분류하는 게 좋을 듯.

다현 - 매체 만들면 어떻게?

자료로 통치..

예지 - 여성운동사?

다현 - 호가 정리해놨어요

예지 - 여성주의 강의 안내.

정윤 - 스피아웃이었나 끼서 올려놔던 듯. 그거 홍보게시판에 올려놓으면 될 듯. 여성주의 관련 사이트

말고 그냥 관련 사이트라고만 하고 다양한 사이트 넣으면 좋을 듯.

혜윤 - 편의시설은 생활안내로.

여학생휴게실.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써도 좋을 것 같고.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.

총여실을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불편해.

다현 - 우리 역량이 후달려요

혜윤 - 페미니리는 목록이 있으면 좋을 듯. 근데 이 이름을 쓸 건가요? 페미니리 자치도서관..

혜윤 - 그냥 도서관이라고 하지 뭐. 자치 안 쓰면 오해하려나. 페미니리(자치도서관)이라고 쓰기로

혜윤 - 생리결석계

정윤 - 기타는 자궁경부암이나 그런 사업들할 때 간단하게 안내하는 페이지를?

혜윤 - 홍보랑 공지로 하면 될 듯

정윤 - 바로가기 신설은 첫 페이지에 바로 들어갈 수 있게.

혜윤 - 자료실에 학칙 만들어주세요.

혜윤 - 컨택어스는 없어졌으니까 대분류가 되었으니까.

정윤 - 빼고 밑에 전화번호

건호 - 총여학생회칙도

혜윤 - 성평등센터 소개도 필요할 거 같은데 생활안내에 넣으면 될 듯
알립니다에 공지사항. 말머리L를 4 개로 할 필요가? 이것보다는 형식을 하는 게? 강의라거나..

혜윤 - 사이트맵?

다현 - 모바일로 접속하면 필요 플래쉬가 안 되니까.

정인 - 메인 이미지에 최근 공지 3 개 정도만 하면

.....

혜윤 - 믹스? 워스?가 가능하면 ... 제가 알아보도록 하구요...

혜윤 - 금요일 자정까지 1 년 사업계획 피드백 다 달아주세요.

페미너리는 다음에.

혜윤 - 성폭력 가해자 징계 관련 공개 사과...

예지 - 내부의 의견을 참고로 혜윤이 피드백?

혜윤 - 언제까지라고 말을 안 해줘서 일단은 미룰게요.

다현 - 일단 언제까지 해야하는지.

혜윤 - 서면결의 안 하려고 했는데. 만나서 얘기하려고. 다른 얘기없이 결의만 해달라고 메일이 왔음

예지 - 서면결의 안 해도 되는 거예요?

혜윤 - 이걸 보고 동의하면 하고...

다현 - 이런 민감한 사안이라면 안 해야되요.

혜윤 - 정기회의에서 구체적인 사안은 서면결의하기로 정했대요. 우리는 반대하면 되는 건가. 정말로 반대하는지,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바꿔달라고 할지. 그냥 찬성 반대만 표시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. 일단 둘

다 반대해서 보낼까요?

다현 - 일단 소영씨랑 ? 에게 물어보고

혜윤 - 만나서하는 건데, 서면결의를 하고 안 갈 수 있다. 근데 여기서는 정기회의에서 서면결의를 하기로
했다고 하니 여쭙봐야할 듯.

혜윤 - 내부 세미나랑 엘티를 짜기로 했는데 누가 하기로 정했나?

내부 세미나랑 엘티를 다음 주 회의 전에 한 번 더 만날 수 있으면

카톡으로 만나야하나.

이번 주 목요일 5 시까지?

예지 - 피드백 금요일까지인데..

혜윤 - 그럼 피드백도 그 전까지 하면 안 되나?

목요일 5 시 추가회의 잊지말아주세요~

고생하셨습니다.